

안홍식 내무국장에 감사패 전달

- 서병설 건협회장 · 전남도청 방문



▲서병설 회장이 안홍식 내무국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健協 서병설회장은 지난 1월 25일 전남도청을 방문, 송언중 도지사를 예방하고, 안홍식 내무국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감사패는 안국장이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본회 부지부장으로서 광주, 전남지부의 발전에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다.

한편 서회장은 이관영 사무총장, 최익현 사업부장과 함께 건협 광주, 전남지부를 내방하고 광주, 전남지부 통합운영에 따른 현판식을 갖고 '89년도의 지부 주

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광주, 전남지부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건협 인사이동

健協은 지난 1월 16일자로 사무국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괄호안은 전직)

-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장용준(본부 총무부장)
- 충남지부 사무국장 김치수(본부 기획부장)
- 본부 총무부장 성정웅(본부 사업부장)
- 본부 기획부장 원용복(대구지부 사무국장)
- 대구지부 사무국장 심형수(경기지부 사무국장)
- 본부 사업부장 최익현(충남지부 사무국장)
- 강원지부 사무국장 함준호(강원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 제주지부 사무국장 김병섭(제주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健協 인천지부 청사 단장

健協 인천지부가 청사 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해 청사 건물을 구입한 인천지부는 내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1층과 2층에 내원자 대기실과 검사실을 설치하고 건강검사 안내판 등을 게시했다.

요충 감염율은 여전히 높다

- '88우리나라 요충 감염율 3.9%

'88년도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협이 지난 한해동안 학생 일반주민 근로자 등 총 1천6백9만9천3백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생충검사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87년도의 2.3%에서 0.8%가 감소한 수치이다.

대상별 수치를 보면 학생의 경우 천2백70만3천여명 검사에 총란 보유율 1.2%, 주민 2백17만여명에 2.4%, 근로자 12만7천여명에서 2.4%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강원, 전북, 전남, 경남등이 3.1%에서 2.3%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어 주요 관리대상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의 경우 서울, 대구등 대도시권의 감염율은 현저히 낮아진 반면 강원, 전남북, 경남 등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 지역등의 집중관리 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한편 주목해야할 것은 요충의 경우 감염율이 평균 3.9%로서 다른 기생충감염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차검사의 결과로서 요충의 경우 쉽게 총란이 채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요충감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놓고 볼 때 앞으로의 기생충관리 방향이 요충을 비롯해 5대 강유역 성인 남자에게 특히 많은 간흡충등 특수기생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전국적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타 기생충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식고취 · 건강상식함양

- '89. 건강관리 공개강좌 개최



健協 서울시지부가 오는 3월부터 매월 1회씩 건강관리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일반주민 및 보건관계자 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건강상식 함양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어온 이 공개 강좌는 그동안 자궁암, AIDS, 신장질환을 비롯해 총 8가지 질병에 관한 강의를 해당 전문의를 초청, 실시하여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건협 서울지부는 올해에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매월 4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공개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월 21일 : 성인병과 식이요법
- 4월 25일 : 고혈압
- 5월 23일 : 심장질환
- 6월 20일 : 성인병과 스트레스, 운동
- 7월 25일 : 당뇨병
- 8월 22일 : 위장질환

- 9월 26일 : 성인병과 식품
- 10월 24일 : 신장질환
- 11월 21일 : 간장질환

직원 인화 단결 도모

- 健協 행운의 스튜디오출연



健協은 지난 1월22일, KBS-2TV의 “행운의 스튜디오”에 출연해 직원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계몽했다.

이날 건협은 중앙 적십자 혈액원을 상대팀으로 맞아 운동경기, 경기자랑을 통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특별 초대된 5명의 의학계 인사들도 매개 임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 합시다”

WORLD HEALTH DAY 1989



세계보건기구(W.H.O.)는 1989년 세계 보건일의 날 주제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 합시다.(Let's talk health!)”로 정했다. 나까지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 '89세계 보건일의 날 주제

맷세지를 통해 『21세기에 다가가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올바른 건강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건강에 관한 지식, 정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야 한다. 건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健協은 W.H.O.의 주제를 중심으로 적절한 행사 계획을 세워 국민의 보건의식 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내원자 관리

전산화 한다

健協업무 전산화 위한 실무반 회의 개최

健協은 본·지부간의 제반 업무 전산화를 위한 실무반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회의를 지난 1월13일에서 14일, 양일에 걸쳐 실시했다.

사업 급성장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정확한 내원자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계획된 건협 업무 전산화는 총 5 억여원을 들여 오는 11월 중순까지 각

시도지부에 기기를 설치 완료키로 하였으며, 이미 전산화 시스템이 완료된 지부의 경우는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정상운영될 예정인 이 전산화 계획은 인건비 및 각종 통신비 절감, 사무용품절감과 더불어 내원자의 효율적 관리, 결과통보의 신속화, 정도 관리등에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1월 13일부터 있었던 실무반 회의에서는 본 지부별로 전산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제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 및 자료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는 본부, 서울, 인천, 전남 지부에서 총 17명이 참석했다.